

# UCC로 다시 타오르는 '오월광주'

(사용자제작콘텐츠)

잊혀져 가는 그날, 5·18민중항쟁이 '감동'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제작콘텐츠)로 되살아나고 있다. 네티즌들이 5·18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동영상 제작,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네티즌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 네티즌들 동영상 제작 국·내외 유포

'5월'과 관련된 동영상은 다음 TV팟·네이버 블로그·엠엔캐스트·프리퀄 마이Q 등 개인블로그나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 TV팟 프로젝트'(http://tvpot.daum.net/project/ProjectView)에서는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사와 함께 'REMEMBER U 518' 캠페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UCC 뮤직 비디오 공모 이벤트를 열고 있다. 11일까지 사진이나 플래시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올라온 동영상은 51개다.

이 가운데 네티즌으로부터 최고 평점(별 다섯 개)을 받은 동영상은 'Remember 518! 그분들을 잊지 마시다'. 민중가요 '광야에서'가 배경음악으로 곁들여진 이 동영상은 아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멧한 눈빛으로 있는 어린이의 사진



등 '그날'의 사진 24장을 5초 간격으로 보여준다. 지난 9일 새벽 1시28분 올라온 이 동영상은 11일까지 조회 수가 170건이 넘었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들 중에는 조회 수가 최고 2천200여 회를 넘는 것도 있다.

## 사이버 공간서 '오월광주' 되새겨

영화 '화려한 휴가'의 공식 홈페이지(www.rememberu518.co.kr)에서는 'REMEMBER U 518' 캠페인 일환으로 '5·18 기억하기 네티즌 10

만명 서명운동'에 11일까지 5천406명이 5·18을 잊지 않겠다는 기억서명을 했다. 영화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네티즌 시민군'을 모집하고 있다. '네티즌 시민군'은 잘못 제보되거나 사실과 다른 5·18민중항쟁과 관련한 정보를 제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

## 조회건수 2천여회 넘는 것도

디지털 영상을 전공하는 대학생 강병기(27)씨는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ariunn)에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문자의 배열을 이용한 디자인)를 활용, '5·18 광주학생 민주화운동'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강씨는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당시의 참혹했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그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디어가 '누리마루' 한 네티즌은 '프리퀄 마이큐 동영상 홈페이지'(http://q.freechal.com/yophappy)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영상자료를 이용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5·18 묘지 찾은 동심들 5·18 광주민중항쟁 27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늘 숲 속 어린이집 유치원생 45명이 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5·18 27주년 전국서 기념행사

## 서울·부산·대구 등 10곳... 5·18문화체험 등 다채

5·18 광주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서울과 대구·경북·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기념식이 열린다. 11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부산 민주공원 등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중항쟁 27주년 정신계승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10일 동안 전개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문화제와 기념비 건립·사진전시회 등도 펼쳐진다. 특히 18일 오전 '오월의 진실, 전진

하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부대행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주먹밥 그림을 모아 만든 대형 벽 그림(가로 3.3m 세로 2.8m)을 서울프레스센터 기념식장 추모대에 설치한다. 또 기념식에서는 '그날'이라는 작품을 출품, 대상을 받는 정민경(경기

# 김밥 사먹은 50여명 식중독 증세

## 여수 김밥 전문점서 보건당국 역학 조사

여수시내 한 김밥 전문점에서 김밥을 사먹은 손님 50여명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설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선원동 K김밥 전문점에서 지난 9일 음식을 사먹은 박모(여·33)씨 등 50여 명이 심한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여수 선원병원과 제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6명에 이른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K김밥집에 판매한 김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이 업소가 하루 판매한 김밥이 100줄이 넘는 점으로 미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수 시내 병·의원 등을 상대로 환자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검사 대상물을 채취,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다. 보건당국은 이 업소가 하루 판매한 김밥이 100줄이 넘는 점으로 미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수 시내 병·의원 등을 상대로 환자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검사 대상물을 채취,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광주대 제2창학 선포식 11일 오전 10시 대학 호심관 1층 대강당에서 전체 교직원과 동문, 재학생,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창학 선포식 및 발전기금 약정식'을 가졌다. 김혁중 총장은 이날 "대학 구성원이 합심해 개교 50주년을 오는 2030년 세계화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市교육청 '원로교사 초청 행사' 망신살

## 선거법 저촉 뒤늦게 알고 돌연 취소

광주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이 참석하는 '원로 교사 초청 행사'를 치르려다 뒤늦게 선거법 저촉 사실을 알고 행사 하루 전 돌연 취소해 망신살을 샀다. 1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광주 모 웨딩홀에서 올해 8월 또는 내년 2월 정년을 하는 교직원 228명 중 행사 참가 희망자 120명을 초청해 기념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위로할 계획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순일 교육감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앞서 "올해 처음으로 정년을 앞둔 교직원들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갖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상당 1천여원씩 주고 초청장 100~200부를 만들어 참가 예정 교직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안팎에서 '선출직

교육감이 정년을 앞둔 교직원들을 초청해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자 행사 하루 전인 10일 오후 늦게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시선거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교육감에게도 공식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식사나 기념품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시교육청은 돌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조선대 치과대학생들의 외도?

조선대 치과대학생 7명이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11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 대학 1학년 안교진·이상민씨 등 2명이 행정직, 1학년 노권형·양희운씨와 2학년 이원표·배기찬·나정주씨 등 5명이 기술직 1차 시험에 각각 합격했다. 이들은 입학 전부터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해 왔거나 지난해 2학기부터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 행정학과 등 전공 학생들도 뚝기 힘든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들이 행정고시에 도전하게 된 데는 합격시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과 졸업 후 보건복지부 등 행정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매력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안교진·이상민씨 등 7명 행정고시 1차시험 합격 대학 관계자는 "조선대는 학생들에게 국가고시 준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차 합격자에게도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합격자 가운데는 이를 겨냥해 커트라인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도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니원침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services, including DS construction and (주)본드나라.

## 30대 아파트 추락사

11일 낮 12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H 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에서 사는 장모(33)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주민은 "베란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장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방안에 "어머니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신변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종범기자 golee@kwangju.co.kr

## 수령 200년 소나무 흠쳐

곡성 경찰은 11일 당국의 허가없이 수령 200년된 소나무를 무단 굴취한 조경업자 이모(53)씨를 특가법상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에 곡성군 곡성면 태평리 곡성군 소유 한 임야에서 굴삭기 기사와 인부들에게 "굴취 허가를 받았다"고 속인 뒤 수령 200년(추정)된 소나무 1그루(시가 2천만원 상당)를 흠쳐 달아난 혐의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 세입자 공장 굴삭기 동원 해체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 뒤에 자신의 땅에서 나가지 않자 굴삭기와 산소용접기까지 동원해 세입자의 공장 지붕과 기둥을 절단한 50대가 경찰서 행.

○11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신모(53·광주 서구 쌍촌동)씨는 지난 3월 광주 서구 금호동 이모(36)씨의 공장에 굴삭기와 인부들을 앞세우고 찾아가 세입자 이씨의 동의를 없이 건물 해체 작업을 벌인 것.

○경찰 조사에서 땅주인 신씨는 "임대 계약만료가 3개월이나 지났지만 '건물은 내가 지었다'며 견혹비 보상을 원하는 이씨가 버티자 이를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

○경찰 관계자는 "수십 만원의 월 임대료 때문에 싸우다가 수백 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쓴 웃음.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May 12th (Wednesday) in Kwangju. Includes a table for precipitation, a map of the region, and a daily weather summary table.

Local news and weather information for Kwangju and Jeonnam. Includes a section for 'Today's Kwangju·Jeonnam' and a phone number for weather inquiries: 062)367-9000.